



세계로 향하는 SAW관 제조업체의 선두 동양철관주식회사

국내에 광역상수도사업이 처음 시작될 무렵 설립된 동양철관주식회사(이하 동양철관)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 중이다.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제품인 폴리우레아 도장강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힘찬 변화를.

2004년 동양철관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전문경영인 박종원 대표가 말하는 동양철관의 기업문화는 한마디로 '신뢰'이다. 올해 동양철관의 노조는 임금협상의 전권을 회사에 맡겼고, 회사는 최대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결정하였으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30여 년간의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실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22년이나 될 정도이다. 과거 사업다각화라는 이름으로 잠시 외도의 길을 걷다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신뢰'는 꺾이지 않고 회사에게 제2의 부흥기를 가져다 주었다.

친환경제품으로 다시 서는 1등 기업

1973년 설립된 동양철관은 주로 상수도사업용 수도관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0년에 들어서는 가스 및 석유수송용 강관(API강관)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 전국의 천연가스 주 배관망

건설용 강관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용수에 이어 생활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일조하고 있다.

동양철관은 현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와 상수도용 강관·강관말뚝을 생산하는 천안공장, 그리고 가스관·배관용 및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등을 생산하는 충주공장을 운영 중이다. 동양철관의 고객으로는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국내 IT 부흥과 함께 전자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시도하다 법정관리에 들어섰던 동양철관이 다시 활기를 얻은 것은 1990년대 말 즈음의 일이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2002년 천안에 PE(폴리에틸렌)공장을 준공하고 PE피복강관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콜타르 일색이었던 강관의 외부를 폴리에틸렌 3층 피복



박종원 대표

앞서가는 기술, 해외시장 개척을 향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불투명해진 국내 경기와 동종 업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폴리우레아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품이고 실용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원 대표는 동양철관이 동종 업계의 선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우레아라는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기에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해외 진출을 앞둔 대형관 전문업체로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비부터 국제 표준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말까지 200~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동양철관의 해외 진출은 이미 시작되어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는 현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도 상수도관 등이 수출되고 있다. 설비 투자가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는 송유관을 비롯한 대형 강관들이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외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박종원 대표는 동양철관의 조직 역시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 중이며,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 또한 국제 표준어로 통일해 쓰도록 하고 있다.

“회사란 곳은 항상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잘 조화하여 회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만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신뢰’라는 밑바탕에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며 믿어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동양철관의 ‘신뢰’와 ‘믿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차례이다. 

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동양철관은 박종원 대표가 취임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폴리우레아 도장강관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폴리우레아는 새로운 코팅 소재를 적용해 기존 폴리에틸렌이나 에폭시수지 등의 도복장 재료보다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물리학적 영향을 대폭 개선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제품 인증(NEP, 2006-131)을 획득한 폴리우레아 도장강관은 미국수도협회규격(AWWA-C222)은 물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국립위생협회(NSF61)의 음용수 기준 48개 항목(유해무기물 11항목, 휘발성 유기물질 28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9항목)을 통과함으로써 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